

# 민주, 부동산 정책 놓고 엇박자

### 송영길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완화... 협의 과정서 조정" 윤호중 "송대표 발언 와전 돼 기사화... 세심하게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놓고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 대표가 대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엇박자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KBS 라디오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 주는 방안과 관련해 "송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택 공급 가격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나머지 90%에 관해 설명하다가 LTV 이야기가 잘못 나왔다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송 대표가 말한 것은 누구나집이라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관해 "LTV와는 별도로 제가 인천시장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SPC)이 50%를 장기 모기로 조달하기 때문에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송 대표는 LTV 완화론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를 완화하자며 경선 과정에서 90%까지 이야기했다"며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송 대표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론에 윤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 '와전'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곧바로 송 대표가 직접 재반박한 모양새가 됐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논란이 일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

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치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의 세제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정책 파트너인 정부와 당내에서 연달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부세 완화론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분들은 거꾸

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계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정 과세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주택 공급도 확실히 하자"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에서도 송 대표 면전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며 "아직 시행도 못 한 양도세 증가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부처님 오신날 합창하는 송영길-김기현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합창하고 있다.

## 정세균, 5월 말께 공식 대선 출마 선언

### 광주전남 지지포럼 '나의 소원' 만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월 말께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을 보인다.

정 전 총리의 광주·전남지역 지지 조직인 '나의 소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전 총리가 전남 간담회에서 이날 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인 전날 광주 호 호텔에서 '나의 소원' 관계자들과 만나 활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광주항쟁이 41년이 지났지만 반성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특권계급 검찰과 수구 언론이 한통속이 돼 '그들만의 수구 특권층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 기만극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광주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광주의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광주 정신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5월말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힌 뒤 "백범선생께서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의미를 담아 출범된 광주전남 '나의 소원 포럼'이 일선적 정치 참여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촛불민심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 회복과 포용사회 구현으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호남 민심을 살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자비·상생으로 코로나 극복" 정치권, 부처님 오신날 기원

정치권은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와 상생이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처님께서 전하신 생명의 소중함과,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의 가르침이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우리 사회를 밝혀주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면서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대한민국을 내우외환의 위기에 놓이게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일터에서 노동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 이광재 "4기 진보 민주정권 반드시 세워야"

### 5·18묘지 참배후 대선 출마 밝혀

19일 광주를 찾은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 대선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4기 진보 민주정권을 반드시 세워야한다"면서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21세기에 맞는 혁신성장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혁신경제, 복지, 외교, 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신이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진보가 과거처럼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먹고사는, 기술혁명 등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진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18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으로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종민(전 국민 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이 이번에는 김 전 부총리를 야권의 대선후보로 띄운다고 한다"며 이같이 설파했다. 이 의원은 "김 전 부총리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김 전 부총리에 대해 "김 위원장의 정략에 흔들리는 무게 없는 분이 아니며 야권의 불쏘시개로 쓰일 한가한 분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른 한 사람과는 달리 김 전 부총리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거론한 '다른 한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나경원 오늘 당대표 출마선언... 첫 일정 광주행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9일 "내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구를 찾은 나 전 의원의 출마 선언 직후 광주를 찾아 지지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이를 사이 영·호남을 넘나들며 광복 행보를 하는 셈이다.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거의 마음을 굳혔다"며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쇄신과 통합, 외연 확장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변해서 더 확대되고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지역과 세대·계층이 같이 할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면



용광로같이 또 모든 야권 후보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영입은 "정권교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의원 출마로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후보는 나 전 의원을 비롯해 조해진·홍문표·윤영석·주호영·조정태·김웅·김은혜 의원, 신상진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10명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예비경선을 통해 5명의 후보만 남긴 후 본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의결했다. 후보 등록일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는 다음달 11일이다.

/연합뉴스

## "5·18 메시지, 다음세대도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메시지에 대해 "5·18이 우리 국민에 널리 공유될 역사 기억으로서 교육적인 의미를 띠고, 다음 세대로 계속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통화에서 메시지를 밝힌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18일 전했다. 이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죽마고로'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여러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5·18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쏟아낸 데 대해 "민주당이 만일 '5·18을 우리만 기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5·18의 의미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서 광주를 방문해 검사들에게 5·18 정신에 대해 얘기한 바 있다"며 "1년 남짓 지난 지금 다시 그 5·18 정신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보낸 입장을 통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의재판에 검사로 참여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